



바이오헬스 수출 성장세 이어간다... 오송서 '원스톱 수출 119' 가동해 수출애로 해소

- '25년 바이오헬스 최고 수출실적을 이어가기 위해
기업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여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 마련 지원

재정경제부 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(단장: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1차관, 이하 지원단)은 2월 5일(목), 의료·바이오 중심지인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(의약품·의료기기·화장품)의 수출 확대 및 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< 오송 원스톱 수출 119 개요 >

- ▶ 일시/장소: '26.2.5.(목) 14:00~16:00 / (주)옵티팜 본사 회의실
- ▶ 참석자: (기관) 지원단 지재처 식약처 방사청 충북도 청주시 코트라 중진공 보건산업진흥원 산단공 등
(기업) (주)옵티팜, (주)메타바이오메드, (주)그린광학, (주)티디에스팜, (주)뷰니크, (주)김스제약

이번 간담회는 2025년 바이오헬스 수출이 사상 최고치(279억달러(잠정), 보건산업진흥원)를 기록한 가운데, 우리 경제의 강력한 신성장 엔진의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특히 K-뷰티와 바이오의약품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고,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 현장의 각종 규제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이번 간담회에는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 등 3개 분야의 6개 기업이 참여하여, 의약품 인허가와 해외 전시회 참여·해외 특허 조사 요청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였다. 이와 관련하여 지원단, 지재처, 식약처, 방사청, 충북도, 청주시, 코트라, 중진공, 보건산업진흥원, 산단공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간담회에 앞서 지원단은 (주)옵티팜 본사를 방문하여 생산시설 등을 현장 점검하고 제약·바이오 업계의 수출 및 해외시장개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유법민 부단장은 “2026년에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이어나가기 위해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신성장 산업의 수출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”며, “수출 현장의 애로해소를 기반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업의 수출 영토 확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 수출총괄팀	책임자	팀 장 주현동 (02-6000-5783)
		담당자	사무관 이한슬 (lhs2735@korea.kr)

